

세븐틴 “누구도 꿈을 잃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 '유네스코 청년포럼'에 참석한 그룹 세븐틴의 승관이 연설하고 있다(왼쪽). 연설 후 공연을 선보인 그룹 세븐틴. 사진=플래티스 엔터테인먼트

중인 에스콕스 외 12명이 모두 참석해 승관, 준, 우지, 민규, 조슈아, 버논 등 6명이 대표로 발언했다.

특히 민규는 세븐틴의 '사회 나눔'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데뷔 이듬해인 2016년 처음 정산을 받아 기쁜 마음에 데뷔 기념일에 맞춰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들을 위해 멤버들 이름의 염소 13마리를 기부했다고 했다. 이후 한 어린아이로부터 사진과 함께 “꿈을 위해 염

소를 잘 키우겠다.”를 편지를 받았다.

그들 세븐틴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연설했다. 세븐틴은 14일 유네스코 총회와 함께 2년마다 열리는 청년포럼에서 단독 연설 무대를 갖고 세계 청년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K팝 가수가 유네스코 총회급 행사에서 하나의 세션 전체를 배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엔 현재 부상으로 활동 중단 후 재활치료

를 받고 있는 민규는 “저희는 그 탄자니아 아이가 그랬듯 꿈을 위해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성장하며 달려왔고, 첫 단독 공연의 관객이 800명도 되지 않던 그룹에서 이제 1천500만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는 그룹으로 성장했다.”며 “어린 세대 누구도,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잃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븐틴은 연설 뒤 공연 무대도 선보였다. 세븐틴이 유럽에서 공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BTS 정국, 미국 빌보드 '핫 100'에 4곡 동시 진입



▲ BTS 정국. 사진=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신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 (Standing Next to You) 등 총 네 곡을 진입시켰다.

14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솔로 앨범 '골든' (GOLDEN)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5위로 이 차트에 처음 진입했다.

또 솔로 데뷔 싱글 '세븐' (Seven)은 49위로 재진입했고, '3D'는 58위를 기록했다. 정국이 더 키드 라로이·센트럴 시와 협업한 '투 머치' (TOO MUCH)는 94위에 올랐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또한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으로 순위를 매기는 '글로벌 200'과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정국은 앞서 '세븐'과 '3D'로도 이들 차트에서 정상을 밟은 바 있다.

속사 빅히트뮤직은 전 세계 솔로 가수 가운데 한 해 동안 '글로벌 200'과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 3곡 이상을 1위에 올린 이는 정국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빌보드 200'에서는 세븐틴 '세븐틴스 헤븐' (SEVENTEENTH HEAVEN) 26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름의 장: 프리폴' (FREEFALL) 73위, 뉴진스 '갯 업' (Get Up) 126위 등 K팝 스타들이 대거 진입했다.

BTS 지민 사진 잘못 올렸다가 못매

미국의 한 연예매체가 프랑스 영화계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엉뚱하게 BTS 지민(본명 박지민)의 사진을 올렸다가 팬들에게 못매를 맞았다.



▲ BTS 지민(왼쪽)과 배우 박지민. 사진=news.sbs.co.kr

미국 매체 데드라인은 최근 프랑스 세자르 아카데미가 해마다 두각을 드러낸 신진 배우 32명을 선정해 발표하는 '레벨라시옹' 행사 기사와 X(옛 트위터) 게시물에 BTS 지민의 사진을 붙였다.

그러나 실제로 명단에 포함된 배우는 프랑스 영화 '리턴 투 서울' (Return to Seoul)에서 주연을 맡은 박지민이었다. 둘은 이름은 같지만 배우 박지민은 여성이고, 가수

지민은 남성으로 성별도 다르다. 리턴 투 서울은 캄보디아계 프랑스인 감독 데이 슈가 연출한 작품으로 지난해 프랑스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다. 또 올해 초 미국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예비후보에 오른 바 있다.

BTS의 한 팬은 데드라인이 기사에 박지민을 여성으로 정확하게 적고도 남성인 지민의 사진을 썼다고 지적했다.

X 이용자 'zetoeye'는 데드라인의 X에 "구글에서 '리턴 투 서울' 출연진을 검색하는 데 1초밖에 안 걸리더라. 특히 글을 쓰려는 아티스트에 대해 잘 모를 땐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적었다.

숫자퍼즐 정답

5	6	8	4	7	9	1	2	3
7	9	2	3	5	1	4	8	6
1	3	4	6	2	8	9	7	5
3	7	6	8	9	2	5	1	4
8	4	1	5	3	7	6	9	2
9	2	5	1	6	4	8	3	7
6	5	9	7	8	3	2	4	1
2	1	3	9	4	6	7	5	8
4	8	7	2	1	5	3	6	9

숨은그림찾기 정답

